

쏟아지는 AI 신제품... '가성비 하드웨어' 핵심 경쟁력 부상

빅테크 기업, 하드웨어 시장 공략
삼성·애플 등 기존 강자들 대응 나서
글로벌 AI 산업구조 변화 본격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가성비 하드웨어'를 앞다퉀 선보이며 하드웨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기존 강자들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6일 정보기술(IT) 전문지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499달러(약 70만원)의 AI폰 '픽셀 9a'를 미국, 유럽 등에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오는 10일, 유럽 지역은 오는 14일, 호주, 인도,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오는 16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일본 출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구글의 AI폰 '픽셀 9a' /구글

픽셀 9a는 구글의 최신 칩셋인 텐서 G4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6.3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5,100mAh 배터리를 장착했다. 또 48MP 메인 카메라와 13MP 초광각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매직 에디트'와 '제미니 AI 어시스턴트' 등 AI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픽셀 9a는 카메라, 배터리, 디



삼성전자의 보급형 모델 '갤럭시A56' /삼성전자

스플레이 등 기본 성능은 갤럭시 A56과 비슷하면서도 구글의 최신 AI 기능을 모두 담고 있어 가성비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출시한 애플의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599달러)보다 100달러 저렴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A56과 동일한 가격대다.

메타와 MS 역시 AI 기능을 강화한 '저가형 하드웨어'를 지속 개발해 출시 준비 중이다.

메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시장에서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하드웨어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 메타는 일반 안경과 유사한 디자인에 AR 기능을 탑재한 AR 글래스 '오리온'을 처음 공개했다.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 메타는 VR 헤드셋 '퀘스트 3S'를 오는 10월 15일 합리적인 가격대에 출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이서(Acer), 에이수스(ASUS), 델(Dell), HP 등 주요 브랜드와 협력해 AI 기능을 강화한 '코파일럿+' PC를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이며 AI PC 시장에 진출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공세에 대응하여 삼성전자와 애플도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8일 보

급형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하며 AI 기능을 중저가 모델에 최초로 적용했다. 출고가는 499달러로 책정됐다. 올해 말 미국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이라 구글의 픽셀 9a와 맞붙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역시 빅테크의 AI 하드웨어 공세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애플은 iOS 생태계의 폐쇄성과 독자적인 AI 기술 개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애플의 강점은 자체 개발한 애플 실리콘 칩을 기반으로 한 AI 성능 최적화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우위다. 또한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 등 강력한 생태계 장벽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e'를 출시하며 중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87만 원대의 가격으로 보급형으로서의 매력에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주요기업 실적 발표... 반도체 '흐림' 車 '맑음'

LG, 삼성, 현대차·기아 등 발표
대내외 악재 영향... 업종별 희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실적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 발표를 공개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악재 영향권속에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7일, 삼성전자는 8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이어간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77조 1928억원, 5조 1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2.3% 감소한 수치다. 모바일과 PC용 D램 수요 약세로 생산량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위축되었으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역시 미국 정부의 HBM 중국

수출 통제 등 영향으로 판매 부진을 기록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또 TV·가전 경쟁 심화와 디스플레이 수익성 둔화 등도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2분기에도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변수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신형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흥행으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LG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2조 668억원, 1조 2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증가, 5.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컨센서스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경우 지난해 2분기(1조 1961억원) 이후 3분기 만에 1조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회복한다.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형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전의 판매 상승과 물류비 절감 영향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LG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을 주력 판매하는 만큼 해상 물류비는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앞두고 1분기 견조한 판매 수치를 기록하며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100만 7000대로 연간 판매 목표(417만 4000대)의 24.1%를 달성했고, 기아는 1분기에 77만 2000대를 판매하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43조 2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2.03% 증가한 3조 6298억원으로 예측됐다. 기아 역시 1분기 매출은 5.32% 증가한 27조 6092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5.91% 감소한 3조 2230억원선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기아의 실적은 2분기부터 트럼프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3월부터(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공급망 인권 관리' 글로벌 1위

노우더체인, ICT 상장기업 평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공급망 인권 관리 책임에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국제 기업인권리소스센터 산하의 비영리기구인 '노우더체인' 평가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ICT 상장기업 45곳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관리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 중 61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노우더체인은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인권관리와 강제노동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며 ▲정책 및 거버넌스 ▲공급망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구매 관행 ▲채용 ▲근로자 권리 ▲모니터링 ▲개선 조치 등 총 7개 분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공급망 인권 경

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으며 2022년 평가 대비 15점 상승했다. 특히 '정책 및 거버넌스', '채용', '공급망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위권내 회사중 지난해 평가 대비 점수가 오른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6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했고 HPE(53점), 시스코(51점), HP(51점) 등이 50점대에 올랐다. 애플은 46점을, AMD, 인텔, 아마존 등은 30점대였다. 중국 ICT대표기업 BOE는 0점으로 45위였다.

노우더체인은 "삼성전자가 공급망 인권 관리 책임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 공개를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특히 강제노동 관련 위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혜민 기자

LG엔솔, 美 배터리 인재 육성 박차

애리조나 인재교육센터 오픈 행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첫 원통형 배터리 공장의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인재 교육 본격화 등 현지 스킴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법인에 애리조나 상공회의소 및 지역 정부 주요 지역 관계자를 초청해 공장 건설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인재교육센터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나희관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법인장(상무)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이 절반 이상 완료됐다"며 "내

년 중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주정부 및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해 새 인재 교육 센터에서 신규 직원 교육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애리조나 주의 고용 지원정책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됐으며 주 상무국, 피널 카운티, 센트럴 애리조나 칼리지와 협력해 운영된다.

애리조나 공장은 오는 2027년까지 약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제조업 허브로서의 애리조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

사 측은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총 7개 공장을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 이번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통해 현지 생산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전기차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과 애리조나에서 생산될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미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추가적인 공급도 논의 중이다.

나 법인장은 "애리조나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현지 인재를 육성하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고·최초의 경험을 선사하고 미국 내 전통화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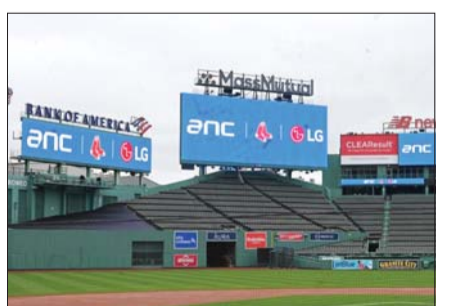
LG전자, '펜웨이 파크'에 디스플레이 공급

초대형 LED 메인 스코어보드 등 설치

LG전자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에 초대형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3월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펜웨이 파크에 가로 30.5m, 세로 11.5m, 총면적 350.75㎡(약 1280인치)의 초대형 LED(발광다이오드) 메인 스코어보드를 설치했다. 이 외에도 가로 21.6m, 세로 7.9m 크기의 대형 리본보드를 포함해 총 842㎡ 면적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11개를 공급했다.

설치된 LED 디스플레이는 밝고 어두운 화면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HDR 기술을 적용했으며, 야외 스포츠 경기장 환경에 최적화된 7000니트 이상의 고휘도와 IP65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



펜웨이 파크 곳곳에 LG전자의 LED 사이니지가 설치된 모습. /LG전자

을 갖췄다.

또한 LG전자는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주인 펜웨이 스포츠 그룹의 광고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에이전시 AN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국 전역의 스포츠 팬들에게 혁신적인 경기장 내 엔터테인먼트 경험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